

「2023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동화 분야

작품 제목

(피프틴 피플) 15번째 국립공원에서 전하는 15가지 청렴이야기

안녕. 내 이름은 오색이, 나는 숲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오색딱따구리야. 내가 사는 곳은 전국에서 탐방객이 가장 많은 북한산국립공원의 숲이야. 이곳에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글썄, 단위 면적당 방문객 수로 1994년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는데, 아직도 그 기록이 유지되고 있다나. 그런데 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이 숲이 내가 생활하기에 꽤 좋은 환경이야. 그래서 내가 사는 이곳을 누가, 어떤 마음으로 지켜주고 있는지 궁금해졌어. 북한산은 우리나라에서 15번째 국립공원이라 주민, 자원활동가, 직원 중 15명을 골라서 인터뷰 해보았어. 직원은 공무원부터 1급 소장까지 골고루 만나보았지. 특히 청렴 공모전 소식을 들었던 터라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15가지 청렴이야기를 만들었어. 자, 한번 들어볼래?

1. 강지연(자원보전과 계장)



지연씨는 국립공원의 생태업무를 맡고 있어. 공원에 서식하는 식물, 동물 등 자연자원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이 그녀의 일이야. 그런데 현장에서 조사 업무를 하는 중에 산삼이나, 그보다 더 희귀한 식물을 발견할 때도 있다고 해. 만약 일을 하다가 산삼이 보인다면 견물생심이라 손이 저절로 갈 것 같은데, 지연씨와 동료들이 눈으로만 본다고 하네?!

그녀가 생각하는 청렴은 '양심'이래. 솔직히 청렴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기에 대쪽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데. 그래서 지킬 것과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정리 된 체크리스트를 수시로 따져본다고. 몰라서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일상적인 점검을 기본으로 하는 거지. 스스로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어쩔 더 청렴한 듯해.

2. 길성근(주민, 상가번영회장)



성근씨는 울대리 상가번영회 회장이야. 군복무를 장흥면에서 하면서 위문편지를 보내온 동네 여고생과 전역 후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했지. 젊은 시절 추억이 서린 곳이라 국립공원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벌써 9년째 상가번영회장이니 자타가 인정하는 리더인거지.

그가 생각하는 청렴은 '정직'이야. 정직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바르고 곧다야.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배려하면 나에게 당장 이익이 없더라도 후대에는 좋은 일이 생길거라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데.

번영회장을 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좋은 끝이 있으려면 정직해라'는 어르신들의 가르침을 새겨서 들었기 때문이래. 그 덕분에 송추마을의 미래가 밝은 것 같아.

3. 김주영(탐방서비스과 과장)



주영씨는 탐방서비스와 시설업무를 총괄하는 탐방서비스과장이야. 열일곱살 때 지역주민의 숲 문화해설을 듣고 국립공원으로 진로를 정했는데, 신규직원 때 자연해설 업무를 배정받고 정말 신이 났었다지. 입사 후에도 공부를 계속해서 지금은 공원관리학 박사가 되었어.

그녀가 생각하는 청렴은 '견득사익(見得思義)'래. '이로운 것을 보거든 이로운지 생각하라'는 의미라는 군. 벌써 20년차 공직생활에서 모든 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더라. 바로 스스로를 점검하는 청렴 역량.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일은 스스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청렴이라 생각한대. 한자로는 어렵지만, 뜻을 풀어보면 쉽지?

4. 박선호(재난안전과 계장)



선호씨는 탐방객의 구조와 안전을 책임지는 레인저야. 원래는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영선업무를 했었는데, 지금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겼는지. 자칭 장동건이지만, 사람들은 그를 에너지이저라고 불러. 자전거로 의정부에서 충주까지, 춘천까지도 거뜰히 왕복하거든. 세상에! 한혈도 114회나 했다.

그가 생각하는 청렴은 '누구나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해. 나는 팬잡겠지가 아니라, 나도 잘못 한 일은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된다는 의미라는군.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싫겠지라는 생각으로 먼저 한다고 해. 어찌면 책임감은 청렴의 씨앗 같아.

5. 배정미(행정과 운영직)



정미씨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23년을 근무한 베테랑 직원이야. 본사에 근무할 때 같이 일 했던 동물을 전공한 멋진 신랑을 만나 예쁜 딸을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그녀가 생각하는 청렴은 '칼퇴근'이야. 아이도 키워야 하고 일도 해야 하는 워킹맘, 워킹파파에게 필요한 것은 칼퇴근. 그런데 칼퇴근을 하려면 하루 한 시간, 1분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일에 집중해야 가능하데. 주어진 업무시간을 사적으로 쓰지 않고 온전히 공적인 업무로 쓰는 것, 그것이 청렴이라고 생각한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개념을 청렴의 관점에서 보는 그녀, 너무 멋지지? 자, 여러분, 칼퇴근을 위한 집중 업무! 시작해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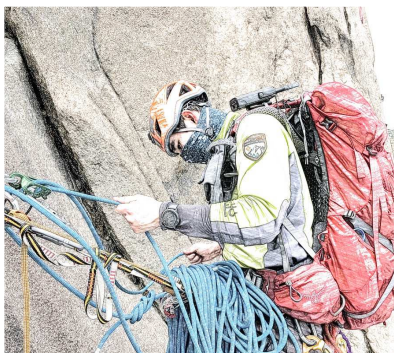
6. 배은우(도봉분소 팀장)



은우씨는 국립공원에서 탐방객이 가장 많은 도봉분소의 팀장이야. 같이 근무했던 많은 동료와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와 근무할 때 즐거운 일이 많았다고 해. X세대지만, MZ세대와도 잘 소통하기 때문이겠지. 그는 LG트윈스의 팬이면서, 매일 글을 쓰는 사람이기도 해.

은우씨가 생각하는 청렴은 '해야 할 일들은 꼭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안 하는 것.'이래. 직원들이 해야 할 것을 놓쳐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질러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봤데. 스스로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갖고, 묵묵히 가다 보면 어려울 것 같은 청렴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군. 청렴과 나란히 함께 걷는 삶, 생각만 해도 멋지지?

7. 여치운(특수산악구조대 주임)



치운씨는 특수산악구조대에 근무하고 있어. 그는 1급 응급구조사라서 사람들이 산행을 하다가 다치면 응급처치를 중점으로 수행하지. 도봉산은 지하철에서 내리면 금방 갈 수 있는 가까운 산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어려운 코스가 많아. 그래서 지훈씨는 안전한 산행을 위한 '안전산행 TV'도 운영하고 있어. 산행시 주의사항과 실제 구조 장면 등을 촬영하고, 콘텐츠 마케팅도 공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해.

그가 생각하는 청렴은 공적인 업무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항상 성실하게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이라. 무엇보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Z세대의 장점만 모아놓은 지훈씨 답지.

8. 이수련(도봉분소 다문화해설사)



수련씨는 베트남에서 나고, 자랐지만, 지금은 국립공원 다문화해설사로 근무하고 있어. 해설사는 동식물에 대해 많은 지식을 알아야 하고, 말도 잘해야 해. 그 일이 쉽지 않았지만, 아이들에게 모범적인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지. 어릴 적 힘들게 자라고, 타국 생활에서 고생이 많았지만, 그 만큼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깊어졌다고 해.

베트남에는 “아버지의 삶을 희생하여 내 인생을 굳건히 하였다.”는 속담이 있다. 그녀는 어머니의 희생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 좋은 열매가 맺힌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많이 찾는 도봉산이니 늘 민원이 만만치 않아. 그러나 오늘 나의 희생과 노력은 아이들에게서 가서 결실을 맺을거라 생각하며, 청렴하게 일하고, 성의를 다한다고.

그녀의 청렴은 모성이 뿌리인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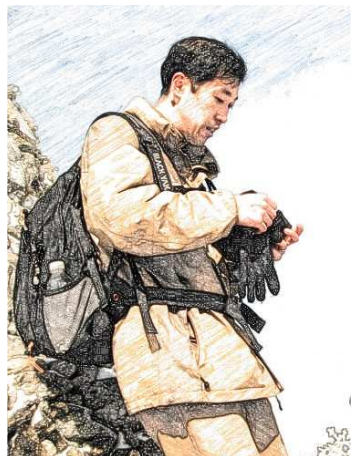
9. 이슬이(탐방시설과 계장)



슬이씨는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 설계와 기획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뒤 기술직으로 입사했어. 입사 전 희망 근무지 조사를 했는데, 언니의 권유로 제일 가까운 남한산성을 써냈었데. 그리고는 인재개발부에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 전국에 23개 국립공원이 있지만, 그곳은 도립공원이거든. 어디를 가나 일복이 넘치는 그녀는 첫 근무지였던 소백산국립공원에서도 많이 바빴다고 해. 지금도 북한산둘레길과 도봉사무소 청사를 새로 짓는 일로 여전히 바쁘지.

그녀가 생각하는 청렴은 ‘내 몫의 값어치를 하자’야.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상품에 비해 더 비싸지 않은지 꼼꼼히 따져보잖아? 그래서 그녀는 내가 받는 월급만큼 일을 더 잘 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늘 그렇게 자기점검을 하며, 내 가치에 맞는 역량을 갖추고, 성과를 내려고 노력한다고. 그녀는 갈수록 더 멋진 동료가 될 것 같아.

10. 이주현(자원보전과 팀장)



주현씨는 환경분야 기술사면서 환경영향평가사야. 법도 잘 알아서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이해관계가 많은 업무라서 청탁금지법이 생기기 전에는 돈 봉투를 건넨 사람들도 있었데. 종현씨는 그 사람들에게 되레 밥을 사주고, 다독여 돌려보냈다 하더라고.

그가 생각하는 청렴은 ‘사적인 마음이 기울지 않게 균형을 조절’하는 거래. 종현씨는 입사 전에 독실한 불자였어. 그런데 국립공원 내 사찰에 아는 스님들이 너무 많아 원불교로 개종했다고 해.

뭘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도록 결심을 한 거지. 스스로 생각하는 청렴의 기준은 높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어?

11. 이지현(탐방시설과 주임)



지현씨는 탐방서비스 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는 새내기 직원이야. 병원 응급실과 소방서에서 일하다가 작년에 입사했지.

그녀는 어렸을 때 피아노와 가야금에 소질이 있었는데. 하지만 아픈 사람을 돕고 싶어 응급구조학을 공부했다고. 지금도 출근길에 사고를 목격하면 다친 사람을 먼저 살피고 출근한대. 119상황실에서 그녀의 신고 전화 목소리를 듣고, 지현씨인지 알아챈 적도 있었다고 하네.

그녀가 생각하는 청렴은 누군가 물었을 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떳떳함’이래. 타인뿐만 아니라 스스로 찢림이 없다면 더 완벽한 청렴이라고 생각한대.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생명을 지키던 지원씨는 이제 국립공원과 국립공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대.

그녀가 지키는 국립공원, 안심하고 방문해볼까?

12. 이진범(사무소장)



진범씨는 사무소의 일을 총괄하는 소장이야. 토목을 전공하고, 기술직으로 입사했지.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북한산둘레길은 이소장 덕분에 생겼다고 해. 그는 계곡변에 위치한 대규모 상가를 이전하고, 원래의 자연으로 복원하는 일도 해냈어. 공원내 쓰레기통을 없애고, 쓰레기를 되가져가도록 한 것도 그야. 대단하지?

소장이면서 오랜 공원관리자로서 진범씨가 생각하는 청렴은 ‘솔선수범’이래. 누구에게 시키기 전에 나부터 먼저 하는 것을 늘 실천해 왔다고 해.

청렴을 실천하는 리더를 보면 직원들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겠지?

13. 유윤희(송추분소 해설사)



윤희씨는 대기업에 다니다 아이를 낳고 경단맘이 되었어. 궁궐과 국립공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40대에 자연환경해설사로 입사해서 내년이면 벌써 20년차야. 그녀는 신규 해설사들에게 멘토면서 만연니 역할을 너무 잘 했어. 함께 일한 동료들은 모두 그녀를 인정하지.

그녀는 건강은 물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자연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 국립공원에 오는 사람들도 비슷한 마음이겠지?

그가 생각하는 청렴은 ‘욕심이 작으면 작을수록 인생은 행복하다.’야. 인간을 제외한 자연의 모든 것은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을 자연에서 일하며, 알게 되었다고 해.

역시 자연은 말 없는 참 스승!

14. 최종희(자원활동가)



종희씨는 국립공원 자원활동가야. 20년이 넘도록 국립공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지. 매주 우이령길과 울대습지에서 식물과 곤충, 동물 등 그가 아는 모든 생명을 관찰하고 기록하지. 수년째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 활동은 계속되고 있어.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찾는 시민이 자원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그녀의 역할이야.

그녀가 생각하는 청렴은 ‘솔직함’이래. 오랜 기간 자원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해서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보았고, 진솔해서 잘 해결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 그래서 그녀는 솔직함을 청렴의 모습으로 생각한다고.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자연처럼, 사람들의 솔직함은 ‘청렴의 마음’과 이어지는 것 같아.

15. 홍사연(공무직 영선반장)



사연씨는 가업을 이어서 2대째 영선반장이야. 아버지는 성함도 ‘영선’이셨지. 그는 손재주가 좋아 국립공원 탐방로나 시설을 고치는데 선수야. 특히 목공이 주특기라서 탐방객을 위해 필요한 물건은 똑딱 똑딱 멋지게 만들어내지.

그가 생각하는 청렴은 최소한 30분 전에는 출근하는 거야. 근무 시간이 시작되기 전 오늘 할 일을 점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는 거지. 매일 도봉산을 찾는 사람들이 다치는 일 없이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 그것이 그의 소임이라 생각한대. 그리고 하나 더! 영선 장비실에는 수 없이 많은 종류의 나사와 못이 서랍마다 가득해. 집에서도 목공이 취미지만, 작은 못 하나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 않는 것이 그의 자부심이야.

이런 마음으로 공원의 시설이 관리되고 있다니, 든든하지?

여기까지가 15명이 들려준 청렴이야기야.

올해 40주년을 맞은 북한산국립공원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다른 듯, 같은 한결 같은 청렴의 마음을 살펴보았어.

청탁금지법이 2015년에 시행되고 벌써 여러 해가 지났지. 법은 그 나라의 문화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해. 법에서 통제하지 못한 양심까지 스스로 챙겨서 지킨다면, 누구나 당연히 지키는 청렴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겠지.

다음엔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져와 볼게. 그럼, 안녕!



※ 본 이야기는 실제 인터뷰를 바탕으로 가공한 것입니다. 출연하는 인물의 배경 및 직무는 사실이나, 가명을 써서 실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사진에 대하여는 제공자의 동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